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이스 피싱’으로 알려진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서울에서만 25건씩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고,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경제활동의 온라인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가 정보통신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지만,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 이에 동 조례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과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